

의안  
번호

1317

진해 중부지역 고등학교 조속 신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 촉구 건의안  
(김수혜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 진해 중부지역 고등학교 조속 신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 촉구 건의안

(김수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7
----------	------

발의연월일: 2026. 4. 21.

발 의 의 원: 김수혜 · 강창석 · 권성현 · 김미나 · 김이근  
김현일 · 남재욱 · 박선애 · 성보빈 · 오은옥  
이정희 · 이해련 · 진형익 · 최정훈 ·  
홍용채 의원(15명)

## 1. 제안 이유

- 창원시 진해 중부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진해 중부지역 고등학교(가칭)’ 신설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 협의 장기화로 표류하고 있는바, 관계 기관의 적극행정을 통한 신속한 타당성 검토 완료와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강력히 건의함.

## 2. 주요 내용

- 진해 중부지역은 진해구 전체 학령인구의 약 45%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고등학교가 전무하여, 매년 500여 명의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겪고 있는 교육 소외 지역임.
- 지역사회의 오랜 염원에 따라 창원시와 경남도교육청은 업무협약을 맺고 자은동 일원(옛 해군해양의료원 인근)에 2029년 개교를 목표로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해 옴.
- 그러나 2024년 시작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 과정에서, 해당 부지 내 기존 스포츠시설에 교육시설(학교)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한 타당한 근거 마련 및 관계 기관 협의가 길어지며 현재까지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

- 학교 신설은 지역 학생들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급한 공익사업임. 행정적 타당성 입증 절차로 인해 사업 전체가 지연되는 것은 국가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므로, 부처 간 유연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사업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함.

### 3. 건 의 문: 붙임

- 4. 수 신 처: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실(의전비서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 진해 중부지역 고등학교 조속 신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 촉구 건의문

창원시 진해구 중부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기약 없는 학교 설립 일정에도 불구하고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학령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되어 있음에도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매일 아침 먼 거리를 통학하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간절한 호소 끝에, 2022년에 창원시와 경상남도교육청이 뜻을 모아 자은동 일원에 '진해 중부지역 고등학교'를 2029년까지 설립하기로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비로소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부터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기존 스포츠시설 부지에 교육시설을 추가하기 위해 행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이 장기화되며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발제한구역 내에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과 합당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 설립' 그 자체보다 더 명확하고 타당한 공익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학습권 보장이, 복잡한 행정 절차와 획일적인 잣대에 가로막혀 지연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라는 틀에 갇힌 소극적 행정이라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적극 행정'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진해 중부지역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관계 기관이 대승적 차원에서 ‘진해 중부지역 고등학교 신설’을 협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경상남도 등 관계 당국은 적극 행정의 자세로 기존 체육시설 부지 내 교육시설 추가를 위한 타당성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즉각 승인하라.

하나.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진해 중부지역의 특수한 교육 현실을 반영하여, 향후 예정된 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 절차가 지연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하나.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은 진해 중부지역 고등학교가 당초 목표인 2029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4월 일

창 원 시 의 회